



기획시리즈



최명섭
임업연구원

함박꽃나무

과명 : 목련과
학명 : Magnolia sieboldii
영명 : Oyama Magnolia
한명 : 天女花
일명 : おおやまれんげ

순수한 우리말로 지어진 나무들은 하나같이 친근한 정감을 주게 마련이다. 으름덩굴, 수수꽃다리, 노린재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쉬땅나무, 잎갈나무, 조팝나무 등. 함박꽃나무 역시 고유한 우리말로 지어져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함박꽃은 작약(芍藥)을 일컫는 명칭이지만 그 이름이 풍겨주는 뉘앙스가 포근해서 옛부터 수많은 시인들의 좋은 문학 소재가 되어왔다. 『보슬비 내리는 아침 아직 대문도 열지 않았는데/ 황홀한 작약꽃 다섯가지를 보내어 왔네/고운 연지가 흑시나 씻기지 않았는가, 비를 맞고 왔으니/ 내 나이 오십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리어/난간에 비켜앉아 시 한편 적어 보내오』 진거비(陳去非)는 비오는 날 아침에 받은 작약을 새색시의 아름다움에 비유, 즉석에서 이같은 감흥적인 시를 노래했다. 함박꽃은 아름다운 꽃

으로 유명하지만 미나리아재비과의 작약과 목련과의 함박꽃나무로 구분된다. 사람들은 흔히 함박꽃나무를 산에서 피는 목련이라 하여 산목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함박이 혹은 개목련이라고도 부른다. 한자 이름으로는 천녀화(天女花)라고 하여 천상의 여인이라 비유하고 있으니 꽃이 피는 나

무를 두고 이보다 더한 찬사가 어디에 또 있을까?

동양고유의 대표적인 관상수로 손꼽히는 목련은 잎이 나오기 전에 피거나 잎이 나온 후에 피는 두 종류가 있으나 함박꽃은 후자에 속한다. 함박꽃나무와 그 외 목련류의 차이점은 함박꽃나무는 꽃이 아래를 향해 피고 그 외 목



▲함박꽃나무 전경

런류는 꽃이 위를 향해 핀다.

1. 생태적 특성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의 계곡에 자생하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 7m에 달하고 표고 50~1,400m에서 자라며 일본, 중국에서도 자라지만 일본은 자생지가 많지 않아 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두고 있다. 원줄기와 함께 옆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군생하며 생장이 빠르고 내한성이 강하나 전정이나 이식을 싫어한다. 계곡부위의 반음지에서, 습기가 다소 있는 비옥한 토질에서 잘 자란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해풍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생육이 다소 불량하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며 길이 6~15cm, 넓이 5~10cm로서 얇은 혁질이고 넓은 타원형으로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뒷면은 회녹색으로 맥을 따라 털이 있다. 꽃은 양성으로서 지름 7~10cm이고 5~6월경 새가지 끝에서 밑으로 늘어지며 백색으로 피고 꽃잎 속에 들어 있는 수술은 적자색으로 새하얀 꽃잎과 조화를 이룬다. 꽃에 향기가 있으며 컹모양을 한 꽃잎은 6장이다. 열매는 길이 3~4cm로서 우리나라의 조미료로 사용하는 고추와 서양의 고추적인 피망의 중간형태를 하며 9월에 익고 종자는 타원형으로 적색이며 익으면 터져나와 실같은 하얀 줄에 매달



▲함박꽃나무의 꽃

린다.

유사종으로 잎에 반점이 있는 것을 얼룩함박꽃나무 (for. *variegata*), 꽃잎이 12장 이상인 것을 곱함박꽃나무 (for. *semplena*)라고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약간 음지의 물기가 있는 토양에 잘 견디기 때문에 도시정원의 큰 나무 밑이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심어 즐길만한 관상수로 5월이면 새로 나온 가지 끝에 한송이씩 순백색의 목련꽃이 피는데 그 속에 적자색의 수술이 수를 놓은 듯 들어 앉아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큰 잎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단조로워 시원한 느낌을 주고 여름 가까워 함박꽃나무의 잎이 싱그러울 때 그 사이사이에서 피는 하얀 꽃송이는 너무나도 소박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정감을 느끼게 한다.

4. 번식법

대개 종자번식을 하는데 종자는 가을에 열매를 채취하여 붉은 과육을 제거한 후 정선한 다음 바로 뿌리거나 노천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뿌린다. 종자는 건조를 싫어하므로 주의해야하고 저절로 떨어진 종자는 거의 발아하지 않는다. 휘문이라도 번식하는데 밑쪽 가지를 휘어서 땅에 닿는 부분에 상처를 내어 묻으면 쉽게 뿌리가 난다.

5. 그 밖의 용도

뿌리를 이용하는데 진통, 하혈, 이뇨, 조혈 등에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꽃 역시 약재로 이용하는데 안약으로 쓰거나 두통 등에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씨를 싸고 있는 겉껍질을 고급 요리의 향신료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뿜으면 우리나라의 초피가루와 같은 맵고도 향기로운 향신료가 된다고 한다.